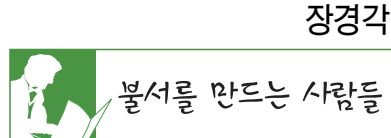




禪의 생활화 이끄는 '손가락' 역할



이시대에 맞는 선(禪) 사상 책을 출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도서출판 장경각의 실무자들이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선서' 제1권을 선보이고 있다.



장경각이 좀 달라졌다.

"선사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대에 맞게 재편집하는 작업을 해내야겠지요."

그런 노력 속에서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선서' 제1권은 <본지풍광(本地風光)>이라는 한자어 대신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나>는 한글 제목을 달고 나왔다. 이는 앞으로 계속 발간될 선서 20권 전권이 이렇게 말랑한 한글어 제목으로 나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문정로>도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는 한결 쉬운 제목으로 다시 태어났다.

번역과 편제도 바뀌었다. 표지 디자인이 산뜻해진 것은 물론이다. 성철 스님은 선을 바로 알리고자 했다. 원택 스님은 독자들이 선을 쉽게 받아들일도록 하는데 원력을 두고 있는 셈이다.

요즘 장경각에서는 성철 스님 기념사업에서 한 발 떨어진 간행물도 준비 중이다. 탁났한 스님이 부처의 일대기를 조명한 <소설 붓다>가 올해 안에 장경각을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탁났한 스님의 <금강경>, <산야심경>에 이어 좋은 반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간이다.

"불자들이 불서를 안 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탁났한 스님의 글처럼 좋은 반응을 얻는 불서가 없는 것도 아니지요. 이는 우리가 읽을만한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20~30대 젊은 층, 대학생들이 호감 있게 읽을 책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장경각을 방문하면서 '선종', '성철'이라는 키워드가 장경각을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장경각이 시대가 바뀌어도 이 키워드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을 알리면서 세상을 향해 말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의미, 그것을 장경각은 전해주었다.

글·사진=김경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1985년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 첫 출간 어려운 책에서 쉬운책으로 방향전환

순위	책 이름	저자	출판년도
1	백일법문	성철	1992
2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철	1987
3	영원한 자유	성철	1988
4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	성철	2006
5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나	성철	2007
6	탁났한 스님의 반야심경	탁났한	2003
7	탁났한 스님의 금강경	탁났한	2004
8	한국불교의 법맥	성철	1990
9	돈황본 육조단경	성철	1988
10	마조록·백장록	백련선사간행회	1989
11	입제록·법안록	백련선사간행회	1989
12	조주록	백련선사간행회	1991
13	중용록	백련선사간행회	1993
14	백일록	백련선사간행회	1993
15	역주 선심승보전	원철	1999
16	한국불교음악사연구	박병훈	2000
17	계율학 개론	목경배	2001
18	돈오입도요론 강설	성철	1986
19	신심명 중도가 강설	성철	1986
20	절대무의 견성철학	심적	2003

때 아닌 봄눈이 내린 3월 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도서출판 장경각(대표 원택)을 찾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장경각'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울릴까 싶었으나 조계사 앞마당이 훤히 보이는 이곳의 위치에 고개만 끄덕였다.

장경각에는 현재 3명의 실무진이 일하고 있다. 영입을 맡은 김운수 부장, 책을 만드는 장선재 편집자, 관리를 맡고 있는 서연정 씨가 그들이다. 이들 모두 장경각에서 일한지 10년이 넘었다.

"저희도 꽤 됐지만 원택 스님 혼자 10여년 출판물 하셨습니다. 스님이 대단하시지요."

요즘 이들은 2012년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때문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념 선서(禪書)'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택 스님도 마찬가지에서 요즘은 백련암에서 원고를 쓰느라 바쁘다고 한다. 과연 장경각은 성철 스님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장경각'이라는 이름은 법보종찰 해인사 장경각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원택 스님이 1985년 백련암에 주석하고 있던 성철 스님의 시자를 맡고 있을 때 설립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택 스님이 직접 설명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학계에는 돈오돈수(頓悟頓修)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활발했지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돈오돈수의 근거를 알 수 있는 고불고조(古佛古祖)의 어록을 엮어 책을 내자는 뜻을 펼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들어진 책이 <선문정로(禪門正路)>다.

장경각은 그 시적이 성철 스님의 의지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렇다고 성철 스님 책만 출판한 것은 아니다. 성철 스님의 의지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해 불자들이 견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3년부터 만들어진 시리즈가 <선림고경총서(禪林古經叢書)>다. 선종의 바른 사상을 확립하는데 근본이 되는 선사들의 어록과 저서를 번역해서 보급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 총서에는 당시 최초로 번역된 <백일록>도 들어있다.

장경각 서적들을 훑다 보니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 불교학에 관심이 크지 않다면 감히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죽창수필

운서주평 지음, 연관 옮김 불교출판부 1991년

서울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

'공염불' 참뜻 일깨워 준 '주옥'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며 흔히 말한다. 공염불(空念佛)에 그친다고... 보기를 들라치면 '이명박 정부인수 위의 영여불입교육 같은 것이 바로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야, '선저절만 되면 누구나 불교를 우대하고 문화와 생태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당선만 되고 나면 그것이 공염불이었음을 알게 된다' 등이 있다. 이런 잘못된 말을 누구나 아무런 반성과 비판 없이 쓰는데다 우리 불교인들까지 이 말을 쓰고 있어 문체가 심각하다. 그래서 함부로 '공염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몇 군데 올렸었다.

일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 평화로워져
신행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것 다뤄



을 하지 않고는 마음과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말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

뜬이 나는 대로, 아니 뜬을 만들어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스스로도 펴진다 하지만 당선만 되고 나면 그것이 공염불이었음을 알게 된다' 등이 있다. 이런 잘못된 말을 누구나 아무런 반성과 비판 없이 쓰는데다 우리 불교인들까지 이 말을 쓰고 있어 문체가 심각하다. 그래서 함부로 '공염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몇 군데 올렸었다.

아침 동 트기 전, 저녁 해 질 무렵

불면서, 또 승산선사의 외국인 제자 현각 스님의 글이 읽히면서 '-쁜', '다만-할 뿐' 등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것은 '집중한다'는 뜻으로 잘 쓰이고 있다.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지도하신 마음공부의 방법이니 그렇게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일을 할 때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앉아서도 여러 생각을 하고 서서 염불(念佛)하면서도 일으키고만 참불(禪佛)하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불공이나 천도 재를 진행하면서 지위 높은 사람이 오면 하면 염불을 그만 두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까지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일을 지적할 때는 '저리가'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면 된다.

말(語,言)은 마음(心)이나 진리(眞理)를 제대로 전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고들 하지만 표정이나 동작 언어를 포함해서 말

좌선대에 앉아서 또는 법당에 앉아서 이리궁구 저리궁구 하면서 여섯 달을 지냈 다. 그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는데 무료할 때 일으키려 마음먹고 가져갔던 딱 한 권의 책이 바로 명나라 때 선승인 운서주평(雲棲株叢)의 <죽창수필(竹窓隨筆)>이었다.

짧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읽내려 가기에 좋았다. 선·정로·계율·방생 등 불자로서의 신행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훗된 일'이 아니라 '공짜로도 해주는 무수상의 염불'이 바로 '공염불'이다. 천도염불을 하면 장수 곁에 병충이 다가서서 염불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없어서 손사래를 치면서 마음속으로 '저리가'라고 했더니 극락으로 가야 할 병사의 혼령이 나타나 염불내용 중 '저리가'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찾아왔다더라. 출가자도 부모에게 질해야 한다. 1000명의 스님 중에 한 사람의 남자도 없다. 이런 주옥같은 이야기가 3권 450여개의 글에 담겨있다. 내 글의 많은 부분의 모티브가 <죽창수필>에서 나왔다.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수록)

휴대용 중전선(방송)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기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100% 환불보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염용(법당) 전기조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 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윤택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정사초롱 및 초롱 곁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